제주도 서사무가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 나타난 권력과 젠더의 향배(向背)
- '신부 바꿔치기' 화소를 중심으로

이소윤*

I. 머리말
II. 이본 검토를 통한 바람운의 출처 확정
III. 두 남성 주체의 균등하지 않은 권력
IV. 가부장을 대리하는 여성의 '몸'
V.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는 목소리
VI. 맺음말

국문요약

제주도 서사무가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일부 이본에서 바람운은 '제주도' 출신의 '서울' 대사의 아들로, 고산국과 지산국은 '중국' 대신의 딸들로 등장한다. 통상적으로 제주도 '외부' 출신의 신은 '내부' 출신의 신보다 좌정상 우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바람운이 중국 대신에게 지산국과의 혼인 허락을 구하면서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것은 '중국'이 표상하는 '외부'와 제주도가 표상하는 '내부'의 위계가 서사 내부에서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대신은 가부장적 전권을 첫째 딸인 고산국에게 위임하기 위해 둘째 딸 지산국 대신 고산국을 신방에 들여보낸다. 그러므로 혼인 이후 눈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 맞아 야반도주한 바람운과 지산국을 '역적'으로 규정하는 고산국의 목소리는 바로 아버지인 중국 대신의 목소리이다. 이때 고산국은 '가부장적 여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산국이 동생에게 성(姓)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보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혼인을 기점으로 두 여성 인물의 성격은 변화한다. 고산국과 지산국은 더 이상 아버지에 의해 '신부 바꿔치기' 될 수 있는 자기 의지 없는 여성의 몸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고산국이 자신의 몸에 가부장의 논리를 새기고 있다면 지산국은 자신의 몸을 가부장의 논리에서 미끄러져 나오도록 한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혼인을 매개로 한 가부장에게서 다른 가부장에게로 이동된다는 것을 주지한다면 지산국은 정식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서'도 '누구에게로'도 이동되지 않는다.

주제어: <서귀포본향당본풀이>, 가부장적 여성, 아버지의 계보, 여성의 몸, 신부 바꿔치기.

Ⅰ. 머리말

제주도의 서사무가인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서는 서홍리의 여신인 고산국과 서귀리의 남신인 바람운, 동홍리의 여신인 지산국의 삼각관계가 드러난다. 이때 고산국과 지산국은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매들로 바람운은 첫째 딸인 고산국과 먼저 혼인했다가 둘째 딸인 지산국과 바람이 나서 제주도로 야반도주를 한다. 이에 분노한 고산국은 바람운에게 살림 분산을 요구한 뒤 자신과 남편 그리고 동생의 좌정처를 가르는데, 이때 동생에게 성(姓)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고산국은 자신이 다스리는 서홍리와 남편과 동생이 다스리는 서귀리·동홍리 주민 간의 왕래와 혼인을 금한다.[1] 그런데 일부 이본에서 바람운과 고산국이

---

1) 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결말부에 제시된 금기가 실제 이 서사무가를 공유하던 지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 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고광민의 연구가 참고된다. 고광민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세대의 경우는 실제 마을간의 대립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당신간의 갈등관계에서 찾는다. 반면 청년세대의 경우는 마을간의 대립감정을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어도 이 연구가 이루어졌을 당시 노년세대의 경

혼인하기까지의 서사가 유독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여기서 바람운이 '제주도' 출신의 '서울' 대사의 아들로 고산국과 지산국이 '중국' 대신의 딸들로 등장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신의 출처가 신의 좌정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개 제주도 '외부' 출신의 신은 '내부' 출신의 신보다 좌정상 우위를 점한다. 즉 신들의 권력관계에서 제주도 '외부' 출신의 신이 '내부' 출신의 신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2] 바람운과 고산국, 지산국의 출처를 고려하여 이들의 권력관계를 조명하는 작업은 이 서사무가의 결말부에 나타난 좌정양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 긴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에 한 가지 더 바람운과 고산국이 혼인하기까지의 서사가 유독 확대되어 나타나는 이들 이본에서 고산국과 지산국의 아버지인 '중국' 대신이 서사 속에 직접 등장하여 신부의 '몸'을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서사무가에 권력과 젠더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암시한다. 중국 대신은 신혼 첫날 밤 바람운이 혼인 승낙을 받았던 둘째 딸 지산국이 아닌 첫째 딸 고산국을 신방에 들여보낸다. 요컨대 아버지에 의

우에 한해서라도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해준다.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21-22쪽.

2)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59쪽. 필자는 이러한 조현설의 논의를 토대로 최근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좌정방식 변화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내부'이면서 동시에 '외부'인 이중의 정체성을, 정수남은 '내부'인 정체성을, 문도령은 '외부'인 정체성을 지니는데, 이들은 외부를 우위에 두는 제주도 서사무가의 좌정원리에 따라 서사에서 부각되는 면모와 다르게 문도령이 상세경으로 자청비가 중세경으로 정수남이 하세경으로 각각 좌정한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 채록된 이본에서는 염제신농이 상세경으로 들어서면서 문도령이 중세경, 자청비가 하세경이 되고 정수남은 세경장남, 곧 세경하인이 된다. 즉 정수남은 삼세경이라는 세경신의 신격 체계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염제신농은 농업을 창시한 '중국' 신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중심국이라는 새로운 '외부'가 <세경본풀이>의 좌정체제로 진입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소윤, 「세경본풀이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5 참조.

해 신부의 '몸'이 바꿔치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아버지에 의해 딸들은 아버지의 부속물로써 대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신부의 '몸' 바꿔치기는 결국 여성의 '몸' 바꿔치기로써 보다 정치한 독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바람운과 고산국, 지산국의 출처 문제와 아버지에 의해 일어나는 신부 바꿔치기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좌정양상에 나타난 권력과 젠더의 복잡한 '얽힘'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서 바람운의 출처에 주목한 선행연구와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에서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고의 문제의식을 더 선명히 하고자 한다.

우선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서 제주도, 서울, 중국의 세 공간이 신들의 출처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3] 이는

---

3) <서귀포본향당본풀이>는 그동안 연구대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사무가이다. 따라서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주요 연구로는 김헌선, 권태효, 허남춘의 연구가 있다. 김헌선은 제주도 당본풀이의 총괄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주도 당본풀이에 나타난 신의 계보와 당본풀이의 서사 유형 그리고 신당의 분포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언급하고 있다(김헌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다음으로 권태효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천착한다. 첫째는 철저한 이본 검토를 통해 이전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선본으로 채택되었던 아카마스와 아키바 채록본이 지닌 자료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서귀본향계 본풀이가 서귀리, 동홍리, 서홍리라는 세 지역 신들의 화합과 갈등을 담은 서사로 신들의 관계가 실제 지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구송되는 서사의 내용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권태효, 「제주도 서귀본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2, 한국무속학회, 2011). 마지막으로 허남춘은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 나타난 천지개벽, 사냥, 사시복지(射矢卜地), 신의 치장이라는 네 가지 주요 화소를 분석함으로써 이 본풀이가 지닌 원시적 신령서사시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요컨대 바람운과 고산국 또는 지산국이 보여주는 천지개벽 화소는 <천지왕본풀이>의 천지개벽 화소에 비견될 수 있으며 다른 본풀이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사냥 화소가 '뿡개질'이라는 사냥방법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활을 쏘아 땅을 점치는 사시복지의 화소는 삼성신화와의 유사성을 보여주며 신의 화려한 치장은 작품의 문학적 형상미를 더해준다는 것이다(허남춘, 「서귀본향당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고전문학연구』 49, 한국고전문학회, 2016).

선행연구에서 바람운의 출신이 어디인가 하는 점에서부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람운의 출처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연구자로 김헌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바람운의 출처를 제주도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써 바람운의 고향이 제주도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4] 반면 권태효는 바람운의 출처가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로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바람운이 제주도 토착신이 아닌 유입신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5] 마지막으로 허남춘은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가 제주도 당본풀이에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관용구임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바람운의 출처를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로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역설한다.[6] 이처럼 바람운의 출신에 관한 선행연구의 각기 다른 입장은 바람운의 출신을 확정하는 것이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해석에 있어서 난점인 동시에 서사의 핵심으로 근접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바람운의 출신을 확정하기 위해 <서귀포본향당본풀이>를 보다 세밀하게 읽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이본을 다시 정리하고 검토하여 여러 이본 가운데 특수한 자료적 성격을 지니는 일부 이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에서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주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7] 그러한 측면에서

---

4) 김헌선, 앞의 논문, 267쪽.

5) 권태효, 앞의 논문, 147쪽.

6) 허남춘, 앞의 논문, 43쪽.

7) 기실 제주도 서사무가 연구에서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을 본격적인 방법론으로 삼아 진행한 연구의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사회 여성이 처한 현실의 모순을 폭로한다든지 그러한 현실 모순을 능동적·주체적으로 극복해내는 여성형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등의 작업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로 이수자, 강진옥, 이경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제주도 서사무가 연구의 선편을 잡은 이수자는 여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무가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신화형성집단의 여성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특히 이들 작품이 페미니즘 이론을 통한 접근과 분석이 매우 용이한 작품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최근 김신정의 연구는 본고의 주제와 밀접하게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여성의 몸이 기술되는 방식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

글에서는 그러한 접근과 분석의 시각이 등장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강진옥의 경우에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시각을 대입하여 가부장제가 도입되기 이전 근원적 생산성을 의미했던 여성상징이 가부장제의 도입 이후 이념적 지향성을 띠게 된 변모 양상을 서사무가 분석을 통해 대략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강진옥, 「한국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민속학』 27, 한국민속학회, 1995). 강진옥과 유사하게 이경하는 여성신이 등장하는 제주도 서사무가를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로 나누어 검토하고 여성신의 정체성이 역시 가부장제의 도입으로 인해 중성성·양성성→모성성→종속성으로 변화해왔다고 논의하였다(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한국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그러나 강진옥과 이경하의 연구는 모두 시론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개별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바로 이 점이 이들 연구가 지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제주도 서사무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점을 끌어들인 연구자로는 조현설이 있다. 조현설은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주체의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무속신화에는 남성지배라는 상징폭력의 장속에서 권능을 암장한 여신들이 벌이는 상징투쟁이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렸다(조현설,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이후 2011년도에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 여신신화에 나타난 구조적 원리를 해명하는 글을 제출한 바 있다(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2011). 그러나 이 글 역시 제한된 텍스트 내에서만 그 논의가 유효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어서 마찬가지로 개별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부재하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진희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시각을 취하여 제주도 서사무가를 가장 깊이 있게 논구한 연구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제주도 본풀이에 드러난 남녀의 젠더 형상이 제주도 전통민가 구조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성역할과 일치함을 주장하였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라는 틀로서만 제주도 서사무가를 이해하던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제주도 특유의 부부 중심 젠더 구조 속에서 여성 주체가 자신의 젠더를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 지를 고찰한 것이다(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이러한 주장은 제주도의 민속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 성과를 참고한, 비교적 실증적인 논의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논의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소 평등한 성격을 지니는 부부 중심의 젠더 구조만이 제주도 서사무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복잡다기한 젠더형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남성지배의 영역에서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로 상정되며 그로 인해 끊임없이 남성에 의해 구속받거나 버려지는 등의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다. 그는 이러한 시각 하에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극복의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때 생명력과 포용력이 여성의 몸에 기입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8] 이처럼 페미니즘 이론을 접목시켜 깊이 있는 분석을 이끌어낸 점은 그 자체로 매우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무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개별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유념하며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젠더와 권력 문제를 논구하고자 한다.

Ⅱ. 이본 검토를 통한 바람운의 출처 확정

권태효에 따르면 현전하는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이본은 총 10개이다.[9] 그런데 그중 4편은 박생옥이라는 심방이 혼자서 구연한 것이다.

---

8) 김신정,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여성문학연구』 2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9) 권태효, 앞의 논문, 141쪽. 10개 이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로 정리한 바와 같다. 본고에서는 이하 각 이본에 해당 구연자의 이름을 붙여 ○○○본이라 지칭하고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단 박생옥 구연본의 경우에는 진성기 채록본은 번호 1을, 장주근 채록본은 번호 2를 붙여 각각 '박생옥본1', '박생옥본2'로 지칭하도록 한다. 개별 자료로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료의 경우에만 음영표시를 하지 않았다.

구연자	채록자	자료명	출처	연도
박봉춘(서귀리 남무)	아키바 다카시 아카마쓰 지조	서귀본향당본푸리	조선무속의 연구(상)	1937
박생옥1(서귀리 남무)	진성기	서귀본향①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김흥남(서귀리 여무)	진성기	서귀본향②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김기생(고산리 여무)	진성기	서귀본향③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김영식(서홍리 남무)	진성기	서홍리본향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박생옥(서귀리 남무)	진성기	홍로본향①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김화춘(서홍리 남무)	진성기	홍로본향②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박생옥2(서귀리 남무)	장주근	서귀리본향본풀이	『한국의 민간신앙』(자료편)	1973
박기석(서귀리 남무)	현용준	西歸·東烘本鄕堂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박생옥(서귀리 남무)	장주근*	서귀리 본향본풀이	『제주도무가』	2008

따라서 박생옥 심방이 구연한 4편의 자료부터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 4편의 박생옥 심방 구연본 가운데 진성기가 채록한 <서귀본향①>과 <홍로본향①>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2편을 별도의 자료로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는 나머지 2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2편 중 하나인 <서귀리본향본풀이>는 장주근이 『한국의 민간신앙』(자료편)에 실은 것이며 다른 하나인 <서귀리본향본풀이>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장음반 시리즈 중 하나로 기획된 『제주도 무가』에 실린 것인데, 『제주도 무가』에 남아있는 자료는 누가 채록한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 음반의 기획에 장주근이 일부 참여한 정황을 볼 때 장주근이 채록한 것을 다시 실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2편 역시 각각 별도의 자료로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10]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생옥 심방이 구연한 4편의 이본 가운데 진성기가 채록한 <서귀본향①>과 장주근이 채록한 <서귀리본향본풀이>만을 검토하도록 한다.

한편, 김기생이 구연하고 진성기가 채록한 <서귀본향③>의 경우 사설이 여덟 구로 극히 축약되어 있으므로 역시 하나의 이본으로 인정하여 검토하기에는 자료로서의 성격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대상 자료 선정을 위해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채록된 10편의 이본 중 총 7편의 이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그런데 권태효는 논의과정에서 아키바 다카시와 아카마쓰 지조가 채록한 박봉춘의 구연본이 다른 이본과는 매우 이질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 또한 논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람운의 출신근본이 제주도로 나타난다는 점, 두 번째는 고산국의 외모가 박색이 아닌 미색인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 세 번째는 지산국의 능력이 고산국의 능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

박생옥2의 경우 본고에서는 불가피하게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에 수록된 것으로 이본을 검토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0) 권태효, 앞의 논문, 같은 쪽, 각주 7) 참조. 권태효 역시 『제주도무가』가 총 13개의 CD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CD1은 장주근, CD2-12는 현용준이 각각 채록한 것임을 명시했으나 유독 <서귀리 본향본풀이>가 수록된 CD13의 경우에는 채록자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째 이유는 실제 이본을 대비해볼 때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지만 첫 번째 이유는 재고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이 점을 실제 자료를 근거로 삼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1)
제주짜 설매국에
일문관바람운님이소사나니[11]

(2)
대명신위전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우나라 비우천리.
서백전 지산국
동백전 일문관 ᄇᆞ름운
ᄇᆞ름웃드.
아방국은 홍토나라
어멍국은 고산국입네다.[12]

(3)
서귀본향한집
서백제 제산국 불히공은
홍톳나라 홍톳천리
비우나라 비우천리.[13]

(4)
아방국은 홍톳도
어멍국은 비웃도.
중국서 이 제주에
들어온 신이다.[14]

---

11) 박봉춘본, 213쪽.
12) 박생옥본1, 497쪽.
13) 김홍님본, 499쪽.
14) 김영식본, 501쪽.

(5)
동홍리 본향한집
난산국을 올립네다.
본산국을 올립네다.
난산국이 어딜러냐?
본산국이 어딜러냐?
아방국은 홍톳도
어멍국은 비웃도우다.
중국서 이 제주도에
들어온 신이우다.[15]

(6)
아방국은 홍토나라 홍토천리
어멍국은 비우나라 비우천리
ᄇᆞ름 웃님과 고산국 혼연 입장시겼습니다.[16]

(7)
남편은 비씨영감 ᄇᆞ름 웃도, 큰부인은 고산국, 족은부인 지산국, 삼부체 됩네다.[17]

위에서 제시한 각 자료들의 인용문은 권태효가 바람운의 출처를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로 인식한 근거들이 된다. 그런데 장주근이 제주도 서사무가, 곧 본풀이의 서사법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화(開話)의 법칙'이란 용어로 개념화하여 제시한 바 있듯이 본풀이는 일반적으로 서두에서 본풀이를 올린다는 인사와 함께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격의 계보를 구송한다.[18] 특히 자료 (2), (4), (5), (6)에는 '아방국', '어멍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권태효가 근거로 삼은 부분이 장주근이 개념화한 개화의 법칙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알려준다. 즉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는 바람운의 출처가 아니라 오히려 바람운의 아방국과 어멍국의 출처라 할 수 있으며 단지 바람운의 신

15) 김화춘본, 513쪽.
16) 박생옥본2, 236쪽.
17) 박기석본, 630쪽.
18) 장주근, 앞의 책, 60-61쪽.

적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 수사적으로 동원된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4)와 (5)는 각각 고산국을 섬기는 서홍리의 심방들인 김영식과 김화춘이 구연한 것의 일부인데, 중국에서 제주로 들어온 신을 가리켜 "아방국은 홍톳도/어멍국은 비웃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이본들에서는 고산국과 지산국이 중국 대신의 딸들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때의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는 정황상 고산국이나 지산국, 특히 고산국의 신적 계보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심지어 서귀리의 심방인 박봉춘과 박기석이 구연한 이본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서사 속에서 고산국과 지산국의 출처로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해볼 수 있다.[19] 이에 따르면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를 바람운의 출처로 보고 아키바 다카시·아카마쓰 지조가 채록한 자료의 특수성 중 한가지로써 바람운의 출처가 제주도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증한 것은 자료의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20]

이러한 측면에서 서사 속에서 바람운의 고향이 제주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바람운의 출처는 제주도인 것이 분명하다고 논의한 김헌선의 연구가 주목된다.[21] 그러나 실제로 바람운의 고향을 제주도로 명시한 자료는 김영식본과 김화춘본 단 2개의 이본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은 바람운과 지산국의 대화를 삽입함으로써 바람운의 고향이 제주도임을 명시하고 있다.[22] 여기에 바람운의 출처를

---

19) "풍설에들으니, 산넘고바다건너만리밧게/비오너라비오쳔리, 홍토나라홍토쳔리에/고산국이라는미색이잇다거늘(박봉춘본, 213쪽)", "ᄇᆞ름웃님이 홍토나라 홍토철리 비오나라 비오철릴 뎅기단보난 ᄒᆞᆫ집의 천하미색 고온 뚤아기가 잇어지니(박기석본, 630쪽)."

20)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허남춘 또한 그의 논문에서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가 제주도 본풀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관용구임을 지적하였다. 허남춘, 앞의 논문, 같은 쪽.

21) 김헌선, 앞의 논문, 같은 쪽.

22) ""어딜로 도망치랴?"/"당신님 이신 고양으로/도망치자."/고양으로 도망치는 것이/제주도를 당ᄒᆞ였다(김영식본, 502쪽).", ""어딜로 도망치랴?"/"당신님네 고양으로/도망치자."/일문관 ᄇᆞ름운님은/처제를 유인ᄒᆞ고/고양으로 도망치는 것이/제주도 할로산을/당ᄒᆞ였수다(김화춘본, 514쪽)".

제주도로 명시한 박봉춘본을 같이 놓고 보면 이는 그 외 나머지 이본에서는 공통적으로 바람운이 지산국과 제주도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드러날 뿐 바람운의 고향 또는 출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끄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2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바람운의 출처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다른 이본들과 달리 바람운을 제주도 출신으로 확정하고 있는 박봉춘본과 바람운의 고향을 제주도로 언급하고 있는 김영식본, 김화춘본이 지니는 자료적 성격은 매우 특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세 이본에서는 바람운뿐만 아니라 고산국과 지산국의 출처 또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박봉춘본의 경우에는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로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고산국과 지산국의 출처가 드러난다. 이는 이들 세 이본 이외에 바람운의 출처와 더불어 고산국과 지산국의 출처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특기할 만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른 이본에서는 바람운과 지산국이 제주도로 피난 오는 것에서부터 서사가 시작되거나 바람운과 고산국이 혼인하기까지의 경위가 소략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 유독 이들 세 이본에서는 바람운과 고산국이 혼인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세하게 구연되고 있다는 점이다.[24]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박봉춘본과 김영식본, 김화춘본이 지니는 자료적 성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 세 이본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바람운이 제주도 출신이면서 서울 대사의 아들로, 고산국과 지산국이 중국 대신의 딸들로 각기 등장하여 제주도, 서울, 중국의 세 공간이 신들의 출처로 제시되고 있는 김영식본과 김화

---

23) "이젠/체아지망 얼굴이 미색이란/호탕해서/손을 잡고/제주도로 피란을 오랐습네다(박생옥본1, 497쪽).", "제주도 할라산으로/피란을 오라(김홍님본, 499쪽).", "절두절섬으로 피난옵너니다(박생옥본2, 236쪽).", "제주 한라산을 넘어오는다(박기석본, 630-631쪽)."

24)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7개의 이본 중에서 바람운과 지산국이 제주도로 피난을 오는 것에서부터 서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본은 김홍님본이며, 바람운과 고산국이 혼인하기까지의 경위가 소략하게 제시되고 있는 이본은 박생옥본1, 박생옥본2, 박기석본이다.

춘본에 나타난 권력과 젠더의 얽힘 현상에 논의의 방점을 두기로 한다. 따라서 우선은 이 두 이본을 중심으로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 서울 대사의 자식인 바람운은 중국으로 유람을 가나 일반 사람의 집에 머무를 수 없어 중국 대신의 집에 머무른다.
2 바람운은 대신과 바둑을 두다가 대변을 보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예쁜 처녀와 마주치고 그가 대신의 딸임을 안 뒤 그 딸을 바로 달라고 말하면 목이 달아날 것을 염려하여 서신으로 써서 바둑판 밑에 숨긴다.
3 사흘 후에 대신은 바람운을 불러 흔쾌히 혼인을 승낙하고 바람운은 대신이 혼인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준 덕분에 너울을 쓴 신부와 혼인식을 올린다.
4 혼인을 올린 그날 밤 바람운은 신방에 들어서서 신부의 너울을 벗겨보니 전에 본적 없던 박색의 처녀가 있으므로 당황하여 동침하지 않고 책상 앞에서 글을 읽으며 밤을 샌다.
5 다음날 바람운은 하녀를 통해 대신 집의 딸이 둘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본 미색의 둘째가 아닌 박색의 첫째와 자신을 혼인시켰음을 알게 된다.
6 언니 몰래 언니의 남편과 눈이 맞은 동생은 바람운에게 부모가 이 일을 알면 우리 목이 달아날 테니 바람운의 고향으로 도망가자고 말하고 둘은 제주도에 당도한다.
7 이에 언니인 고산국은 옥황에게 역적이 도망친 방향을 알려 달라고 축수를 올리면서 대축기를 달고 대축기는 제주도를 가리킨다.
8 고산국이 뒤쫓아오는 것을 알고 죽을 지경이 된 바람운이 자신의 주특기인 풍운조화를 부려서 동서남북을 캄캄하게 만들고 안개가 끼고 비가 오게 하자 고산국이 갈길을 몰라 주저앉은 곳의 바로 뒤가 절벽이었다.
9 고산국은 죽은 구상나무의 썩은 부분을 떼어 닭모양으로 만든 뒤 본래 있던 곳에 다시 꽂고 시간이 흘러 삼경이 되자 구상나무가 닭이 되어 닭울음소리를 내니 안개가 일시에 사라진다.
10 고산국은 바로 남편과 동생을 발견하지만 차마 죽일 수 없어 좌정처를 찾으러 다니다가 김봉태의 도움으로 동홍리, 서홍리, 서귀리 세 곳의 좌정처를 찾는다.
11 고산국은 남편에게 따로 갈라서자고 하며 인간, 땅, 물도 함께 갈라서자고 한 다음 서홍리를 차지하고 바람운은 나머지 중에서 화살을 쏘아 서귀리를 차지한다.
12 동생이 고산국에게 자신도 좌정처를 달라고 간청하자 고산국은 대신 성

을 바꾸라고 하고 이에 동생은 성을 지가로 바꾸어 지산국이 된다.

⑬ 고산국은 서귀리 사람이나 동홍리 사람이 서홍리에 와서 벌목하는 것과 또 서홍리 사람이 서귀리나 동홍리에 가서 벌목하는 것을 금하게 하며 만약 이를 어기는 일이 생길 시 어긴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⑭ 바람운과 지산국이 차지한 서귀리·동홍리 사람들이 고산국이 차지한 서홍리에 가서 나무를 베자 고산국은 즉시 그들을 죽게 만들고 바람운과 지산국은 인간이 무슨 죄가 있냐며 항변한다.

⑮ 고산국은 숙고 끝에 벌목을 허가하는 대신 서홍리와 서귀리·동홍리간의 혼사는 금하도록 한다.

위의 서사단락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제주도'가 고향이면서 동시에 '서울' 대사의 아들인 바람운과 '중국' 대신의 딸인 고산국과 지산국의 인물 설정이다. 특히 바람운과 고산국의 혼인에 고산국의 아버지인 '중국' 대신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고산국의 아버지에 의해 일종의 '신부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 바람운은 아무런 항변도 표하지 못한다. 이는 '중국'이 표상하는 '외부'와 제주도가 표상하는 '내부'의 위계가 서사 내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바람운과 자신의 동생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고산국이 이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의미심장하다. 이 역시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서사적 갈등이 단순히 애정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부분은 서사의 결말부에서 고산국이 자신의 동생에게 성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부분이다. 성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권력과 젠더의 문제가 이 서사에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 그간의 선행연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지점들에 유의하면서 <서귀포본향당본풀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때 물론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때에 따라서는 박봉춘본을 비롯한 다른 이본도 함께 참고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Ⅲ. 두 남성 주체의 균등하지 않은 권력

중국 유람차 중국 대신의 집에서 머물던 바람운은 중국 대신과 바둑을 두다가 용변을 보러 가던 도중 중국 대신의 둘째 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25] 흥미로운 것은 바람운이 둘째 딸과의 짧은 첫 만남 이후 그와의 특별한 감정적 교류 없이 중국 대신으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내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람운과 훗날 지산국이 되는 중국 대신의 둘째 딸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바람운이 중국 대신의 첫째 딸과 혼인한 이후의 일이다. 즉 바람운은 둘째 딸과의 정서적인 교감보다도 중국 대신, 즉 가부장의 승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주인공의 가부장의 승인에 대한 집착은 이 서사가 가부장 중심의 남성 지배를 근간으로 구축된 서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바람운은 중국 대신에게 혼인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그 방법에 대해 무척 고심한다. 그런데 이때의 고심이 단순히 혼인 승낙을 받아내기 위한 부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가)
그 예쁜 처녀는
그 집안 뚤인디,
대신님께
"그 뚤을 줍셍
요청을 ᄒᆞ민
모가지가 엇일거고"
ᄒᆞ연,
대신 엇인 때에
서신으로 글을 씨고
바둑판알로 질러두언,

---

25) "대벤 보레 가는 도중/예쁜 처녀를 눈에 걸렸다./방으로 돌아오니/바둑 둘 정신이 엇었구나(김영식본, 501쪽).", "뒤가 ᄆᆞ르와서/칙간으로 가는 도중/고운 비바리를 만났수다./방으로 돌아오니/바둑 둘 정신이 엇고/그 고운 비바리광/결혼을 ᄒᆞ지그리왔수다(김화춘본, 513쪽)."

“조금 어디 가옵네다.” ᄒᆞ고,
나고갔다.
사흘만은 들어오고 보니,
쥐연 대신이,
그 서신을 보고,
“왜 입으로 못ᄀᆞᆯ아서
서신을 했느냐?”
“엄중해서 입으로
못 ᄀᆞᆯ았수다.”
“허가ᄒᆞᆫ다.”26)

자료 (가)에서 바람운은 혼인 승낙을 구할 때 입으로 구하면 자신의 “모가지가 엇일거고”라고 걱정하며 중국대신에게 직접 서신을 쓰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딸을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쓰는데 그것마저도 직접 전하지 못하고 바둑판 아래에 찔러둔 뒤 잠시 어디를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사흘 동안 종적을 감춘다. 이러한 바람운의 자신감 없는 태도는 서두에서 묘사되었던 그의 위세와는 무척 대비되는 것이다. 명색이 “대ᄉᆞ의 ᄌᆞ식이라/일반 사름의 집으로/유ᄒᆞᆯ 수가 엇어서”27) 중국 대신의 집으로 거처를 정한 사실은 그만큼 바람운의 위세가 대단한 것이며 어찌 보면 그 위세가 중국 대신 못지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후의 서사적 전개는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것인데 적어도 바람운의 위세가 중국 대신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람운이 중국 대신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바람운과 중국 대신 사이에 힘의 비대

---

26) 김영식본, **501**쪽. 김화춘본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 비바린 그 집의 ᄯᆞᆯ인디,/대신님께 그 ᄯᆞᆯ을 줍셍/ ᄒᆞ지 그리와도/그영ᄒᆞ민/내 모가지가 엇일 거고./대신 엇인 ᄀᆞ리에/서신으로/“대신님의 ᄯᆞᆯ을/저에게 주십서.”/ ᄋᆞᆼᄒᆞᆫ, 글을 씨고/바둑판알로 질러두고/“족곰 어딜 강 오쿠다.”/ᄒᆞ고 나고 갔수다./일문관 ᄇᆞ름웃또가/사흘만이 들어오고 보니,/주연 대신이/그 서신을 보고,/“왜 입으로 못ᄀᆞᆯ아서/서신을 했느냐?”/ᄒᆞ니,/“엄중해서 입으로 못ᄀᆞᆯ았수다.”/“허가ᄒᆞᆫ다(김화춘본, **513-514**쪽).”

27) 김화춘본, **513**쪽. “체얌이/일문관 ᄇᆞ름웃도란/서월 대ᄉᆞ의 ᄌᆞ식이/중국으로 유람을 갔는디,/일반 사름의 집으로/갈 수가 엇어,/대신의 집으로/쥐연을 ᄒᆞ였다(김영식본, **501**쪽).”

칭과 불균형이 있음을 드러내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다른 이본에서 바람운이 묘사되는 방식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있다.

(나)
안음가득활을발고, 붕어눈을부릅쓰고
삼각수를거스리어, 살하나를내쏘으면
삼천군병이소사나고
또한살을내쏘으면, 삼천군병이돌아들고
텬문에상통하고,디리에하달하더라[28]

(다)
ᄇᆞ람운님은
남방스주 합바지에
붕애바지 저고리에
머리올려 감상퉁
무낭동곳 질르고
백낭보선
구만리 박단이
별통행경 둘러치고
황망긴 황갓
산쇠털 흑도벌립
은문다단 안을 받쳐
중앙서 둘립 밀화 궁덕짓
대공단 불림친
소공단 죄움친
남비단 섭수
남수아지 퉁전대[29]

인용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 (나)에서 바람운은 화살을 한 번 쏘면 삼천 명의 병사를 솟아나게 하고 천문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지리에까지 통달한 인물로 나타난다. 또 자료 (다)에서 바람운은 비단으로 만든 바지 저고리와 상투에 꽂은 산호 동곳, 큰 갓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28) 박봉춘본, 213쪽.
29) 박생옥본1, 498-499쪽.

복장을 하고 등장한다. 그러나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에서 이러한 바람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를 끈다. 다른 이본들에서 보여주는 바람운의 위세와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에서 보여주는 바람운의 위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박봉춘본에서도 바람운은 첫째 딸과 혼인한 뒤 둘째 딸과 밀회를 시작하면서 예컨대 "심신이불안하며,고산국의앞에서는/큰죄인이나되진듯이/무서와서어쩔줄을몰낫다"[30]와 같이 고산국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에서는 바람운이 느끼는 두려움이 "부미가 이 일을 알민/우리 둘을 애개기가 엇일 거난,/도망치자."[31]라는 둘째 딸의 언술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즉 두려움이 더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박봉춘본에서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출처가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에서는 이러한 가상의 공간이 '중국'이라는 실제의 공간으로 구체화되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중국' 대신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은 박봉춘본에서는 바람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인데 이는 다른 이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유독 중국 대신이 등장하는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에서만 바람운의 아버지가 '서울' 대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마치 '중국' 대신의 등장에 보조를 맞춘 듯하다. 따라서 박봉춘본과 김영식본·김화춘본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람운(제주도 출신→제주도 출신의 서울 대사의 아들)
고산국·지산국(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 출신→중국 출신의 중국 대신의 딸들)

주지하듯이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남녀 신격의 결합형식은 신들의 좌정원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조현설은 "내부와 외부의 결합과 분

---

30) 박봉춘본, 214쪽.
31) 김영식본, 502쪽. "부미가 이 일을 알민,/우리 둘은/애개기가 엇일 거난/도망치자(김화춘본, 514쪽)."

리"라는 신화구성원리를 도출한 바 있는데, 이때 '내부'와 '외부'는 결국 제주도를 기준으로 신의 출처가 제주도 '내부'인가 아니면 제주도 '외부'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 서사무가는 '내부'를 표상하는 남성 혹은 여성과 '외부'를 표상하는 남성 혹은 여성의 결합과 분리에 따라 신들의 좌정처가 정해진다.[32] 그런데 통상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외부'를 '내부'의 우위에 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람운이 제주도 출신이면서 서울 대사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내부'이자 '외부'인 이중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문제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다.[33] 바람운이 '내부'이자 '외부'인 이중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동아시아 한문 문명권의 중심국인 '중국'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표상 앞에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바람운은 '외부'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내부'를 신체화하고 있기에 보다 강력한 '외부'의 등장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다.[34] 바람운과 중국 대신 사이에 놓인 힘의 비대칭과 불균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운과 중국 대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혼(定婚)에는 바람운과 중국 대신 사이의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념할 것은 두 남성 주체의 권력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대신

---

32) 조현설(2009), 앞의 논문, 159쪽.

33)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이렇게 이중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 흔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각주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인물로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대표적이다(이소윤, 앞의 논문 참조).

34) 이때 바람운은 아버지가 '서울' 대사이니 본질적으로는 제주도 '외부'를 표상하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는 보다 복잡한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놓이는데, 즉 고려 후기부터 제주도가 대표적인 유배지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위 선비 출신의 죄인이 제주도로 대거 유입되었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 또는 '한양' 출신의 남성과 '제주도' 출신의 여성이 연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아버지가 죄를 사면 받아 '서울' 또는 '한양'으로 돌아갈 때 대개 따라가지 못하고 '제주도'에 남았다.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에 구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내부'인 '제주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제주도 서사무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이소윤, 앞의 논문 참조).

과 바람운이 진행하는 정혼은 애초부터 불공정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 대신의 첫째 딸은 서사 속에서 얼굴에 볼 것이 하나도 없는 엄청난 추모(醜貌)를 지닌 것으로 이야기된다.[35] 따라서 바람운이 중국 대신에게 딸을 주십사 혼인 승낙을 구했을 때는 중국 대신 역시 바람운이 박색의 첫째 딸이 아닌 미색의 둘째 딸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즉 신혼 첫날 밤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뒤바뀐 것을 단순한 의사소통의 착오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대신이 혼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차려 서둘러 바람운과 첫째 딸을 혼인시킨 것도 모종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박색의 첫째 딸을 어떻게든 시집보내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관철된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36] 그러므로 중국 대신은 혼인식 날 바람운 몰래 신부의 '몸'을 바꿔치기한다. 바람운이 요구한 둘째 딸이 아닌 첫째 딸의 '몸'으로 신부를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서사적 갈등이 증폭되는 지점은 그럼에도 바람운이 이 혼인을 무를 수 없다는 가혹한 현실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두 남성인물의 동등하지 않은 권력관계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운은 첫째 딸과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둘째 딸과의 만남을 몰래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둘째 딸이 부모님과 언니의 눈을 피해 중국을 벗어나 바람운의 고향인 제주도로 도망가자고 바람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권력관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둘째 딸에게서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둘째 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전까지 서사 속에서 둘째 딸은 목소리는커녕 그 표정마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첫째 딸인 고산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바람운과 고산국의 혼인을 기점으로 중국 대신이 자취를 감추면서 여성 인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혼인 이후 고산국이 된 첫째 딸이 처음으로 낸 목소리가 바람운과 둘째 딸의 야반도주를 "역적"

---

35) "얼굴이 볼 나위가 엇이/박새기라(김영식본, 501쪽).", "얼굴이 박새기라(김화춘본, 514쪽)."

36) 이때 아버지의 의도에 담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 서사무가를 다시 여성의 '몸'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 공교롭게도 고산국의 인물 형상이 아버지인 중국 대신을 대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장에서는 여성의 '몸'에 초점을 맞추어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Ⅳ. 가부장을 대리하는 여성의 '몸'

다시 바람운이 둘째 딸을 처음으로 마주쳤던 순간으로 돌아가면 바람운은 둘째 딸과 마주친 뒤 중국 대신과 두던 바둑을 마저 둘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둘째 딸과 혼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는 순전히 둘째 딸의 미색이 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바람운이 신혼 첫날 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첫째 딸의 얼굴을 보고 당황하는 것도 그때 봤던 미색의 얼굴이 아닌 박색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부가 바꿔치기된 상황 속에서 바람운의 문제의식은 "체얌 본 때의 얼굴이 아니"[37]라는 점에 있다. 즉 처음 봤던 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람운에게 있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혼인한 여인의 얼굴이 미색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서 여성은 철저히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자리매김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 가능한 존재태는 미녀(美女) 아니면 추녀(醜女)라는 두 가지의 이분법적 존재태뿐이다. 더 가혹한 것은 이 서사에서 '미'나 '추'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으며 다만 남성의 시선에 의해 직관적으로 포착되고 파악되는 것으로서만 미추관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바람운을 첫눈에 반하게 만든 둘째 딸의 이목구비에 대해서는 알아볼 길이 없으며 이는 박색인 첫째 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바람운의 목소리를 통해 "얼굴에 볼 나위가" 없었던 것으로 묘사될 뿐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바람운과 둘째 딸의 첫 만남에서 오직 바람운의 심

37) 김영식본, 501쪽. "체얌 본 얼굴이 아니로다(김화춘본, 514쪽)."

정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딸의 목소리와 표정은 이 장면에서 소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 당일 신부는 아버지의 명령 아래 둘째 딸에서 첫째 딸로 그 '몸'이 바꿔치기 된다. 이때도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목소리와 표정은 포착되지 않는다. 두 딸의 '몸'은 아버지의 부속물로써 자기 의지가 없는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교환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 바로 이들을 바꿔치기하는 아버지의 의도이다. 물론 첫째 딸은 박색이고 둘째 딸은 미색이라는 점, 그래서 둘째 딸에 비해 첫째 딸이 혼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아버지의 다급한 심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욱 필사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즉 바람운과의 관계에서 중국 대신이 점했던 권력상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중국 대신의 가부장적 전권을 엄연히 장자(長子)라 할 수 있는 첫째 딸에게 그대로 계승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비록 박색일지라도 장녀인 첫째 딸이 먼저 혼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람운과 첫째 딸의 혼인 이후 중국 대신이 서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혼인을 통해 가부장적 전권이 본인에게서 첫째 딸에게로 이양되었으므로 그는 더 이상 서사 속에서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첫째 딸이 '고산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시점이 혼인 이후라는 사실은 더 흥미롭다.[38] '고산국'이란 이름이 등장하는 시기와 중국 대신이 퇴장하는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딸이 혼인 이

---

38)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을 제외한 다른 이본들의 경우에는 혼인하기까지의 과정이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어서인지 서사 초입부터 '고산국' 또는 '지산국'이란 이름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은 역시 특수한 자료적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풍설에들으니, 산넘고바다건너만리밧게/비오너라비오쳔리, 홍토나라홍토쳔리에/고산국이라는미색이잇다거늘(박봉춘본, 213쪽).", "ᄒᆞ를날은/ᄇᆞ름운님이 고산국부인광/혼인입장을 ᄒᆞ연 보난/고산국 얼굴이 박새기라(박생옥본1, 497쪽).", "ᄇᆞᄅᆞᆷ웃님과 고산국 혼연 입장시겼읍니다./큰부인은 얼굴은 박색이로되 기술은 좋아/축지법이 좋아지되 ᄇᆞ름웃님이야 생각이 없어지니/처아지망이 얼굴은 천하 미색이요/처아지망을 성은 고가를 지가로 변경시켜/절두절섬으로 피난옵너니다(박생옥본2, 236쪽).", "ᄇᆞᄅᆞ웃님이...중략...장개가젠 ᄒᆞᆫ 아기씬 처아지망이 뒈고 부인은 고산국이 뒙데다(박기석본, 630쪽)."

후에 부여받는 이름인 '고산국'은 그 자체로 가부장적 전권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39] 그런데 첫째 딸이 '고산국'이란 이름을 얻음과 동시에 가부장적 전권을 계승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면모라든가 혹은 주체적인 여성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고산국'이라는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묘사되는 고산국의 형용은 그러한 해석들이 자료의 실상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 아래 인용문을 통해 더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라)
큰부인 고산국은
뒷녁날 아척 시수를 ᄒᆞ고
천기운간 벨자릴 보니,
"이런 역적이 어디 시랴!
내 서방이 내 동싱을
유인ᄒᆞ고 도망치염구나."
고산국은 천근활에
백른쌀을 둘러박고
옥황에 축술 헸수다
"역적이 도망치는 방향을
ᄀᆞᆯ아줍서."
대축기를 불리니
대축기가 제주도로 불려온다.
고산국은 대축기 불리는냥
좇아갔수다.[40]

자료 (라)에서 첫째 딸은 혼인식을 올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바람운과 자신의 동생이 야반도주했음을 깨닫고 분노한다. 이때 처음 '고산국'이란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데 첫째 딸이 고산국으로 호명되는 순간 자신의 육성으로 처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그 말

---

39) 박봉춘본에서 첫째 딸은 '고산국'으로 둘째 딸은 '동생 고산국'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고산국'이 첫째 딸만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동생되는고산국은안개도슬을희우거늘(박봉춘본, 216쪽)."

40) 김화춘본, 514쪽.

이란 것이 "이런 역적이 어디 시랴!" 즉, 자신의 남편과 동생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란 점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역적'은 대개 한 나라나 민족, 혹은 왕을 반역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고산국이 남편과 동생의 야반도주를 역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야반도주가 단순히 남녀의 치정 문제로 해석되지 않고 적어도 제주도 출신의 '서울' 대사 아들이 '중국'에 대해 일으킨 일종의 반역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산국 스스로 한 나라나 민족, 혹은 왕의 위치에 자리하면서 바람운과 둘째 딸이 자연스레 반역자의 위치에 자리하게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인식이 과연 첫째 딸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역적이 어디 시랴!"라는 언술이 진정 첫째 딸의 목소리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기실 앞서 둘째 딸이 "부미가 이 일을 알민/우리 둘을 애개기가 엇일 거난,/도망치자."고 이야기할 때의 둘째 딸과 바람운이 두려워한 대상은 분명 부모, 곧 아버지인 중국 대신이었다. 그러나 "천근활에/백른쌀을 둘러박고/옥황에 축술"해서 이들을 뒤쫓는 것은 중국 대신이 아닌 바로 '고산국'이다.[41] 이러한 정황에 빗대어 볼 때 역시 첫째 딸의 '고산국'이란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가부장을 대리하는, 혹은 그 자체로 가부장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영식본에서 첫째 딸은 남편과 동생의 야반도주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예복 입성 벗어두고/남복 입성 주워입고/천근드리 무쇠활/백근드리 무쇠쌀/둘러받고 옥황에 축술"[42] 한다. 첫째 딸에게 고산국이란 이름이 주어지고 그가 남장을 하는 것은 아버

---

41) 조현설은 <세화본향당본풀이>의 금상과 <궤눼깃당본풀이>의 궤눼깃도가 군사문화, 즉 전쟁영웅의 표상으로 제주도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이는 농경문화를 상징했던 백줏도와는 또 다른 외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즉 이 당들이 송당보다는 후대에 이룩된 당이고 그래서 송당과는 문화적 성격이 전혀 다른, "다시 말해 방포일성의 힘을 중시하는 군사문화를 배경으로" 생겨난 당들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조현설, 앞의 논문, 2009, 465-467쪽). 고산국이 무장 형상을 하고 제주도에 입도하는 것 역시 이러한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2) 김영식본, 502쪽.

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정체성을 덧입는 행위, 곧 자신의 몸에 가부장의 논리를 신체화하는 행위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서사 말미에 고산국이 둘째 딸에게 성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주의를 끈다.

(마)
나쁜 동싱 갈 딘 엇다.
"내 갈 디를
성님이 ᄀᆞ리쳐 줍서."
"너는 갈 디 나는 몰른다."
그젠 혼ᄉᆞ 잘 못ᄒᆞᆫ
굴복을 올리니
성님이 생각은 ᄒᆞ연 보니
아시가 불쌍ᄒᆞ여
"기영ᄒᆞ건, 너가 성을 개부해라.
경ᄒᆞ민 내가 너 갈 질을
ᄀᆞ리쳐 주마."
"성은 무엇으로 개부ᄒᆞᆸ네까?"
"왜 내가 이를 필요 있겠느냐,
네 입으로 일러라."
"예, 게멘 지가로 ᄒᆞᆯ쿠다."
"아맹이나 ᄒᆞ여라.
건 네가 알지,
난 몰른다."[43]

자료 (마)에서 고산국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반역자에게 아버지의 계보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 역시 고산국에게 아버지의 가부장적 전권이 일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터이다.

---

43) 김영식본, 505쪽. "나쁜 아시 갈 딘 웃입네다./"성님이 내 갈 디를/ᄀᆞ리쳐 줍서."/"나는 너 갈 디를 몰른다."/그제는 혼ᄉᆞ 잘 못ᄒᆞᆫ/사과를 올리니/고산국이 생각ᄒᆞ여 보니/아시가 불쌍ᄒᆞ구나./"기영ᄒᆞ건 너가/성을 개부ᄒᆞ라./경ᄒᆞ민 내가/너 갈 질을 ᄀᆞ리쳐 주마."/"성은 미시거옝 개부ᄒᆞᆸ네까?"/"그거야 내가 알 필요가/싯겠는냐? 네 입으로 일러라."/"게멘 지가로 ᄒᆞ겠수다."/"아멩이나 ᄒᆞ여라./그건 네가 알지 난 몰른다./이제랑 동홍리 강/인간을 ᄎᆞ지ᄒᆞ라(김화춘본, 517쪽)."

이때 이 아버지가 '중국' 대신이라는 점, 즉 중국이라는 강력한 '외부'의 권력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새길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고산국에게 있어 남편보다도 동생이 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산국은 인간 김봉태를 통해 제주도에 서홍리, 서귀리, 동홍리의 세 좌정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먼저 서홍리에 좌정하고 이후 남편 바람운에게 남은 서귀리와 동홍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좌정하게 한다. 그리고 동생은 외면하는데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이후에야 겨우 언니 고산국으로부터 좌정처를 점지 받게 된다. 이때도 동생에게는 남편에게는 제시한 적 없는 '성을 바꾸라'는 단서조항이 조건으로 내세워진다. 이렇듯 남편보다 동생에게 내리는 처벌의 강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동생이 혼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동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굴복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몸'은 철저히 아버지의 종속물이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바꿔치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곧 아버지의 입장에서 두 딸은 충분히 교환될 수 있는 대상으로써 이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미 동일한 승화물로서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44] 그러나 바람운에게 둘째 딸 대신 첫째 딸을 시집보

---

44) 이리가레에 따르면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마치 상품과 같이 한 남성에게서 다른 남성에게로 이동된다. 따라서 이때의 여성은 오로지 교환될 수 있는 능력 이외에는 다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개개의 여성 자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여성의 개별적인 특성은 여성 집단으로의 추상화를 겪는다. 즉 한 여성과 다른 여성은 남성이 '규정한' 여성성에 따라 동일한 승화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리가레는 상품으로 비유되는 여성이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그 거울이 반사해내는 것은 남성의/남성을 위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은 자신을 주조해낸 남성의 권위를 찬양하고 숭배하며 끊임없이 남성의 존재를 모방하고자 한다고 이리가레는 주장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서 고산국과 지산국이 점하는 위치는 마치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교환대상으로서 점하는 위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Irigaray, Luce,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by, Catherine Porter and Caroline Burk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이하 **TS**로 약칭하고 페이지 수만 표기), **170-191** 쪽을 참조할 것.

내려던 아버지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한다. 결코 자기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부속물이 아버지와는 다른 욕망을 감히 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둘째 딸의 "혼ᄉᆞ 잘 못ᄒᆞᆫ 굴복"의 요체는 아버지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승복이다. 그리고 그 결과 둘째 딸은 '고'씨에서 지'씨로 성을 바꿈으로써 아버지의 족보로부터 완전히 축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중심국이라는 '중국'의 표상은 온전히 아버지를 대리하는 첫째 딸인 고산국의 것으로만 남는다. 서사 말미에서 고산국이 서홍리와 서귀리 그리고 동홍리에 대해 각종 금기를 제시할 수 있는 권력은 바로 이러한 표상 체계로부터 획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둘째 딸의 성씨바꿈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다.

V.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는 목소리

이상의 논의에서 지산국이 되는 둘째 딸은 아버지와는 다른 욕망을 품고 아버지의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여성인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부미가 이 일을 알민/우리 둘을 애개기가 엇일 거난,/도망치자."는 둘째 딸의 언술은 가부장의 횡포와 억압의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주체의 목소리이다. 더 이상 아버지에 의해 교환되던, 자기 의지가 없던 육체가 아닌 것이다. 서사 말미에서 둘째 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그에 앞서 언니에게 자신의 좌정처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인물의 '몸'이 가부장의 논리에 마냥 지배당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둘째 딸이 가부장의 자장으로부터 한 걸음 비켜서 있을 수 있었던 연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둘째 딸이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혼인'을 매개로 가부장인 아버지에게서 다른 가부장인 남편에게로 이동된다고 가정할 때 둘째 딸은 그러한 가부장적 이동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45] 즉 그는 바람운과의 야반도주를 통해 가부장-아버지에게서 탈출하기는 하지만 이는 가부장-아버지가 노정하는, '혼인'이라는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경로를 밟은 것이 아니다. 또 이후에도 둘째 딸이 바람운과 혼인식을 올렸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즉 둘째 딸 '몸'의 최종 도착지는 가부장-남편이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둘째 딸은 '누구에게서'도 또는 '누구에게로'도 이동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둘째 딸과 바람운은 일종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둘째 딸과 바람운의 좌정처가 끝내 다르다는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산국이 바람운에게 "뚜로 갈라 살자."[46]고 말하며 "이젠,/인간도 갈르자./땅도 갈르자./물도 갈르자."[47]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부부의 살림 분산은 곧 좌정처의 분리를 의미한다. 즉 남녀신의 좌정처가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곧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바람운은 서귀리로 둘째 딸은 지산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홍리로 좌정한다. 결국 바람운과 지산국은 목숨을 건 야반도주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부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산국에게 가부장-남편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그로 하여금 가부장제의 바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박봉춘본에 나타난 둘째 딸의 도술 능력이다. 박봉춘본을 제외하고 본고에서 주로 검토한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을 비롯한 나머지 이본에서는 바람운과 둘째 딸의 야반도주 이후 벌어지는 도술 싸움이 온전히 바람운과 고산국의 것으로만 나타난다. 고산국은 남편과 동생의 야반도주 사실을 깨닫자마자 백리길을 오리길로 당기는 축지법을 사용하며 바람운과 동생을 재빠르게 추격한다. 이에 죽음의 위협을 느낀 바람운은 풍운조화를 부려 동서남북을 어두컴컴하게 만들고 안개도 끼고 비

---

45) "The production of women, signs, and comodities is always referred back to men (when a man buys a girl, he "pay" the father or the brother, not the mother …), and they always pass from one man to another, from one group of men to another. The work force is thus always assumed to be masculine, and "products" are objects to be used, objects of transaction among men alone." TS, 171쪽.

46) 김영식본, 504쪽.

47) 김영식본, 같은 쪽.

도 오게 한다. 따라서 제주도로 입도한 고산국이 직면하는 것은 도무지 앞이 분간되지 않는 암흑이다. 암흑 속에서 하마터면 절벽 뒤로 떨어질 뻔 한 고산국은 죽은 구상나무 가지를 주워서 닭 모양으로 깎은 뒤 다시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데, 자축 야삼경이 되자 죽어있던 구상나무 가지가 닭이 되어 울고 그 소리에 암흑이 걷혀서 광명이 찾아온다.[48]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도술을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바로 백리길을 오리길로 줄이는 축지법과 천지를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풍운조화, 닭 모양의 구상나무 가지를 이용한 광명 창조이다. 그 중 풍운조화만 바람운이 사용하는 도술이고 축지법과 광명 창조가 고산국이 사용하는 도술인 것인데, 박봉춘본에서는 둘째 딸이 풍운조화를 부리고 바람운이 광명을 창조한다.[49]

---

48) "좇이는 쿤부인은/제주는 뭔 제주를/ᄀᆞ졌는가 ᄒᆞ니,/축지법을 ᄒᆞ는 기술이 있다./백리질을 오리에 ᄃᆞᆼ기멍/좇았다./적은 뒤테레 ᄇᆞ리니/곧 죽을 ᄉᆞ경이 당했다./일문관 ᄇᆞ름웃드는/제주는 뭔 제주를 ᄀᆞ졌는가?/풍원조애를 불리고,/동서남북이 ᄏᆞᆷᄏᆞᆷᄒᆞ고,/안개가 찌고,/비가 오고,/ᄒᆞ난./뒤에 심으레 좇아온 부인은/동서남북을 몰르난/무르디뎌 앚아 보난/칭암설백 에염일/오라졌구나./배심삼ᄒᆞ연/...중략.../ᄇᆞ레여보난/죽은 구상낭이 이섰구나./...중략.../그 남을 끗어내연/...중략.../어떵사 ᄃᆞᆨ 모양이 되었구나./...중략.../ᄌᆞ축 야삼은 되여가난/목을 들러 울고/놀갤 ᄯᆞ리고 소릴 쳤다./그 소릴 치는 ᄇᆞ름엔/도실안개가 걷어젼(김영식본, 502-503면)." "고산국은 백리질을/오리에 ᄃᆞᆼ기멍 좇아가니,/일문관 ᄇᆞ름운은/뒤테레 ᄇᆞ리니/곧 죽을 ᄉᆞ경이 당ᄒᆞᆸ네다./일문관 ᄇᆞ름운님은/풍운조애를 부리고/동서남북이 ᄏᆞᆷᄏᆞᆷᄒᆞ고/안개가 찌고 비가 오고/ᄒᆞ난,/고산국은/동서남북이 왁왁ᄒᆞ연/몰르난/뒤테레 무르디뎌 앚아졌수다./고산국이 앚아 보난,/할라산 칭암설백 에염엘/오라졌수다./고산국은 배심심ᄒᆞ연/...중략.../죽은 구상낭이 싯구나./...중략.../석은 걸 털어 보난/축 웃이 ᄃᆞᆨ 서늉이/되였수다./...중략.../ᄌᆞ축 야삼경은 되여가난/ᄃᆞᆨ이 되고/목을 들러 울고/놀갤 털고 소릴 칩네다./그 ᄃᆞᆨ이 소리치는 ᄇᆞ름에/도실안개가 걷어지고(김화춘본, 514-515쪽)."

49) 박생옥본1과 2에서 둘째 딸은 제주도에 입도한 뒤 성을 고씨에서 지씨로 바꾸고 구상나무 가지를 꺾어 절벽에 꽂아 세상을 밝게 한다. "구상낭을 꺾어/치하설백에 꼬조완 시니/천앙ᄃᆞᆨ은 목을꺾으고/지앙ᄃᆞᆨ은 놀갤 벌기고/계명ᄃᆞᆨ 소리가 나고/시상이 붉아집네다(박생옥본1, 497쪽).", "구상남 상가지를 걱꺼 칭하절벽데레 질렀더니만은/천하둙은 목청 들러 지하둙은 날개 들러/자지반반 울어 동성계문 열립니다(박생옥본2, 236-237쪽)." 이는 둘째 딸이 도술을 다룰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 것이란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박생옥본1과 2는 박봉춘본이나 김영식본, 김화춘본과 같이 바람운과 고산국의 혼인 서사가 확대되어 있는 각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둘째 딸의 광명 창조가 박봉춘본처럼 대결 국면에

(바)
고산국깃발을ᄶᅡᆯ아달니여
제주한라영산에이르니
과연동생과바람운이도망하야, 부부를맷고
첫사랑에홍취하고잇는지라
분긔충텬하야, 게우살의쌍게로
둘을한숨에사살코저하니
동생되는고산국은안개도슬을픠우거늘
뎌장갓흔밤이되여
형되는고산국은정신이아득하게되엿다
형은별별도술을부리고
하나님ᄭᅦ몃번이나축도를드리나
원래동생의술이능헌지라
검은안개를헷칠길이바이업고
몸을ᄲᅢ처날묘책이업거늘
도로혀굴하게되엿다
...중략...
이리하야일문관바람운이
향남가지를꺽꺼다가, 층암절벽에찔으니
커다런닭이되여, 목성을높이들고소리처울거늘
밤이새여가며, 동방에고은달이소사올음에
비로소완면을분별하게되엿다[50]

자료 (바)에서 "동생되는고산국"은 "형되는고산국"보다도 더 뛰어난 도술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산국이 "별별도술을부리고/하나님ᄭᅦ몃번이나축도를드"려도 "원래동생의술이능헌지라" "검은안개를헷칠길이바이업"다는 것이다. "몸을ᄲᅢ처날묘책이업"다는 생각에 다다른 고산국은 오히려 바람운과 동생에게 굴복한다. 물론 바람운을 섬기는 서귀리의 심방 박봉춘이 구연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운의 정부(情婦)인 둘째 딸의 우수한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터이다.[51]

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함께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50) 박봉춘본, 216-217쪽.

51) 이는 서귀리 심방인 박생옥이 구연한 박생옥본1, 2도 마찬가지이다.

흥미로운 것은 권태효의 의문처럼 다른 채록본에서는 모두 둘째 딸의 도술 능력이 첫째 딸의 도술 능력에 못 미치는 것으로 구연된다는 점이다.[52] 이에 대해 권태효는 구연자인 박봉춘 심방이 본풀이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 박봉춘본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본풀이 자체가 변화했을 가능성, 채록 및 정리 과정에서 제주 언어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미숙으로 자료가 잘못 정리되었을 가능성 등을 타진하였다.[53] 이 가운데 본풀이 자체가 변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언니인 고산국보다 더 우월했던 지산국의 능력이 소거된 것이라 볼 수 있다.[54] 문제는 소거된 도술 능력의 향방이다. 앞서 말했듯이 김영식본과 김화춘본에서 둘째 딸의 풍운조화 도술은 바람운에게로, 바람운의 광명 창조 도술은 고산국에게로 각각 전달된다. 고산국이 동아시아 한문문명국의 중심국인 '중국'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결국 이는 권력의 향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55]

박봉춘본과 김영식본, 김화춘본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지 않더라도 둘째 딸의 도술 실력을 찬탄하는 박봉춘본과 미약하게나마 둘째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김영식본, 김화춘본이 공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

52) 권태효는 "서귀리에서 전승되는 당신화를 채록한 것이기에 그 지역민이 섬기는 신격의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다른 채록본에서는 공통되게 지산국보다는 고산국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아키바의 채록본만 이처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가 의문이다."라고 한 바 있다(앞의 논문, 150쪽).

53) 권태효, 위의 논문, 150-152쪽.

54) 이러한 측면에서 박생옥본1, 2에 드러난 지산국의 광명 창조는 그것이 시간의 격차를 두고서도 동일하게 채록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산국의 도술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55) 허남춘은 그의 논문에서 조동일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 "신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오는 과정과 신들의 갈등과 화해, 신과 신앙민의 계약과정 뒤에 덧붙은 신들의 형상"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을 들어 <서귀포본향당본풀이>가 원시서사시의 일종인 신앙서사시임을 규명한 바 있다(앞의 논문, 65-66쪽). 그러나 서사 속에서 '중국'이 패도적 중화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그 위상은 원시가 아닌 고대와 중세를 거쳐 확립되었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바, 오히려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는 본래의 원시서사시로서의 측면과 고대 서사시와 중세 서사시로의 측면이 아울러 혼재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둘째 딸의 언술을 가부장제에 균열을 가져오려 하는 주체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읽게끔 만든다. 박봉춘본에 나타난 둘째 딸의 도술 능력은 결국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은 이 인물이 주체적인 여성인물 형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한다.

Ⅵ. 맺음말

<서귀포본향당본풀이>는 젠더와 권력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서사무가이다. 이는 제주도 '내부'를 표상하는 남성 혹은 여성과 '외부'를 표상하는 남성 혹은 여성의 결합과 분리에 따라 신들의 좌정처가 정해지고, 통상 제주도 '외부' 출신의 신이 '내부' 출신의 신보다 좌정상 우위를 점한다는 제주도 서사무가만의 독특한 좌정원리에 의해 견인되는 바가 크다. 여기서 더 고찰되어야 하는 것은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 나타난 '신부 바꿔치기' 화소의 의미이다. 기실 그간 채록된 설화에서 '신부 바꿔치기' 화소는 대개 정혼한 남녀가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56] 이들 설화에서 '신부 바꿔치기' 화소가 문제 해결의 축에 놓인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서는 '신부 바꿔치기' 화소 그 자체가 문제 원인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서사무가가 한국 구전서사의 전통에서 다소간 돌출되어 있음을 보여

---

56) 채록된 설화의 경우 <바꿔치기 혼인>(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1989, 88-96쪽)과 <박문수와 바꿔치기 혼인소동>(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1989, 776-783쪽)이 대표적이다. 또 1943년 『국민문학』에 일본어로 발표된 범국민적 희곡 「맹진사댁 경사」 역시 신부 바꿔치기 화소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는데, 이때도 신부 바꿔치기 화소는 서사 속 주인공들에게 권신징악의 결말을 선사하는 문제 해결의 축에 놓인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윤일수, 「<맹진사댁 경사>에 나타난 바꿔치기 혼인 설화의 계승 양상」, 『한국연극학』 7, 한국연극학회, 1995, 127-152쪽 참조. 더하여 <바꿔치기 혼인 소동>(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8, 1989, 415-426쪽)이라는 각편도 존재한다.

준다. '신부 바꿔치기' 이후 벌어지는 야반도주와 그에 대한 추격, 그 과정에서 일종의 창세 행위로 해석되는 바람운과 고산국의 도술을 이용한 쟁투, 그리고 보복의 방편으로써 고산국이 여동생에게 요구하는 성씨바꿈 등의 문제는 '신부 바꿔치기' 이후 오히려 서사적 갈등이 더욱 증폭·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아버지에 의해 '신부 바꿔치기'의 대상이 되었던 고산국과 여동생 지산국이 끝내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고산국은 바람운과 지산국을 죽이기 직전에 어찌 차마 남편과 동생을 죽일 수 있겠냐며 스스로 자신의 살의를 억누른다. 그러나 고산국이 여동생에게 성씨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고산국과 여동생의 갈등이 완벽하게 봉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여동생, 곧 둘째 딸이 아버지의 계보에서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점에서 고산국과 성씨를 바꿔 지산국이 된 여동생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두 여성이 대립할 경우 두 여성은 흔히 힘이 있는 여성의 양보를 통해 화해를 이룩한다.[57] 그러나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서 여성적 연대가 파열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제주도 서사무가의 국면에서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부장 사회에서 혼인을 통해 교환대상이 되는 여성은 다른 여성과 경쟁 상태에 놓인다.[58] 인척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혈족에 대한 정을 훨씬 앞서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다처제가 야기하는 처첩간의 갈등은 자매간의 우애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의 '신부 바꿔치기' 화소가 보여주는 여성적 연대의 분절은 오히려 그것이 여성의 현실을 온전히 투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자체로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곧잘 드러나지 않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이 서사무가가 지닌 독보적 위치를 확인시켜준다.

---

57) 조현설, 앞의 논문, 2011, 115-116쪽.

58) 이리가레는 상품으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사유화에 의해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가부장 사회 내에서 여성이 연대를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TS, 189쪽.

참 고 문 헌

1. 저서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가무가』, 역락, 200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秋葉隆·赤松智城 저, 『조선무속의 연구』 상,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각, 2007.

2. 연구논문

강진옥,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민속학』 27, 한국민속학회, 1995.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권태효, 「제주도 서귀본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2, 한국무속학회, 2011.

김신정,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여성문학연구』 2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김헌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윤일수, 「<맹진사댁 경사>에 나타난 바꿔치기 혼인 설화의 계승 양상」, 『한국연극학』 7, 한국연극학회, 1995.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한국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이소윤, 「세경본풀이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조현설,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_____,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_____,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2011.

허남춘, 「서귀본향당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고전문학연구』 49, 한국고전문학회, 2016.

3. 외국서

Irigaray, Luce,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by, Catherine Porter and Caroline Burk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Abstract

A drift of power and gender in Jeju shaman epic Seogwipo-Bonhyangdang-Bonpuri
-Focusing on the 'bride shifting' motif

Lee, So-Yun*

In some versions of the Jeju shaman epic Seogwipo- Bonhyangdang-Bonpuri, Baramun is the son of a 'Seoul' Buddhist priest from 'Jeju-do' and Gosanguk and Jisanguk, both appear as the daughters of a 'Chinese' minister. Generally, a Jeju-do god considered an 'external' is positioned as superior to an 'internal' god. Therefore, when Baramun feels his life is being threatened while asking the Chinese minister for Jisanguk's hand in marriage,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influence of the hierarchy of 'China' and 'Jeju-do' being exercised, each symbolizing the 'externals' and 'internals' respectively. But, the Chinese counsel sends Gosanguk into the room instead of the Jisanguk, in order to entrust the firstborn Gosanguk with patriarchal authority. So, when Gosanguk defines Baramun and Jisanguk, both who fall in love and elope after the matrimony, as 'traitors' it is actually the voice of her father. At this time, Gosanguk is 'patriarchal woman'. In that sense, when Gosanguk demands her sister to renew her surname, she is also demanding that she get out of her father's lineage. Meanwhile, both

* Ph. D.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emale character's personality change after the matrimony. Gosanguk and Jisanguk are not just woman's body without self-will that can be 'bride shifting' by their father. However, while Gosanguk has the patriarchal logic engraved in herself, Jisanguk lets her body slip away from the patriarchal logic. Recognizing that in a patriarchal society a woman is transferred from one patriarch to another through matrimony, Jisanguk technically did not move 'from someone' to 'being someone's' for she did not have an official matrimony.

Key Words : Seogwipo-Bonhyangdang-Bonpuri, patriarchal woman, father's lineage, woman's body, bride shifting

교신 : 이소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amkasoyun@snu.ac.kr)

논문투고일 2016. 12. 28.
심사완료일 2017. 02. 01.
게재확정일 2017. 02. 07.